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6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19.

발 의 자 : 김태년 · 김영배 · 김준형
김태선 · 권칠승 · 한민수
박지원 · 김영진 · 박홍배
정준호 · 염태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반포 · 판매 · 임대 ·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· 상영(이하 “반포등”이라 한다)할 목적으로 촬영물 · 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“촬영물등”이라 한다)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· 합성 · 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포등의 목적이 없는 자가 해당 촬영물등을 편집 · 합성 · 가공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반포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· 합성 · 가공한 자를 처벌하고자 함.

또한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(안 제14조의2).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1항 중 “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”를 “사람의”로, “5년”을 “7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5년”을 “7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7년”을 “10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
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
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
금에 처한다.

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
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
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
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
역에 처한다.

<신 설>

④ (생 략)

-----7년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10년-----
-----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
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
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
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처한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